

선교사가 되려면(오스왈드 스미스)

TMTC 15기 인천북부 정진화

선교는 동경과 꿈이 아니며 현실이다. 그 현실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인생의 가장 바쁜 시점같기도 한 지금, 선교훈련을 신청하고 10년 넘도록 우리 집 책장 안에 있던 이 책을 꺼내 들었다. 누구도 내게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적인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선교를 계획하고 나가야 하는지 알려준 적도 들어본 적도 거의 없다. 어깨 너머로라도 말이다.

선교에 대해 지식적인 면, 방법적인 면, 실제적인 면.. 아는 것이 전무한 상태이다. TMTC 선교 훈련은 정말 막무가내이자 대책 없는 시작이 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서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보내는 선교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았다.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나의 제한된 시야는 세상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길 원하면서 마흔 가까이가 되어서야 확 넓어지기 시작했다. 복음의 소식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고 그 안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했다. 그렇게 나의 일상에 딱 붙어 현실이라고 여긴 일그러진 세상에서 나의 근시안적인 시야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야로 더욱 확장되길 원한다. 세상을 향한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보듯 나의 시야와 나의 기도가 닿길 원한다.

나의 삶에 최고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에 위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수백 명의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우선, 선교사라는 것이다. 그 다음이 목사이며 복음 전도자이고 그 다음이 찬송가 작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저술가이기도 하다 말한다.

우선,.. 나는....이라는 이 말속과 행간속에 담긴 의미가 참 가슴뭉클하였다.

우선, 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역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정체성을 갖고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혹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되돌아봄이 앞선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밭을 경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주어진다. 그럼에도 세상의 복음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복음의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강조점이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능력과 나의 학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깨주었다. 셋째, 달하진 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핑계임을 알았다. 바울은 열려있는 문으로 차례 차례 들어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잘 알고 계신다. 넷째, 우리가 충분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들이 사도바울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멸방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셨다.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선교사가 되려면(오스왈드 스미스)

TMTC 15기 인천북부 정진화

비유로 말이다. 어린 아이를 위험에서 구해 주었을 때 줄을 잡고 있는 사람? 우물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아이를 구해온 사람? 건져진 그 아이를 위해 보살피고 치료해준 사람? 상급은 똑같이 주실 것이다. 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됨을, 보내는 선교이든, 보내지는 선교이든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필요가 있음을 절실함을 알았다.

우리 가정은 교사선교회에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세가정, 교회에서 후원하는 3가정,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두 선교지가 있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져있었다. 교회다니니깐,, 선교하는 거니깐.. 이라는 당위성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계기가 있다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이다. 전쟁으로 피난민처럼 거처를 옮기시고, 마을 사람들과 목숨걸고 예배를 지키시고 구호물품을 나누어주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떠올랐다. 그리고 선교훈련 강의에서 예미희 선교사님이 나눈 이야기가 맘에 와닿는다. 선교지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단기 선교훈련을 온 지체들에 의해서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선교가 아닐까 싶다.

내가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끊임없는 후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훈련할 동역자들을 더욱 많이 세우는 것,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어 드리는 것,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 곳에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믿고 한 발짝 선교에 대한 소망을 앞당겨 본다.